

# 열립니다!

## YTN 라디오가 2천만 명에게 열립니다.

방송권역 확대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2천만 명이  
청취할 수 있게된 YTN라디오!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전문 YTN라디오가  
제 2의 개국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 YTN NEWS FM 94.5MHz



# YTN

# YTN

2010년 5월 <제 86 호>

• 발행인 : 배석규 • 편집 : 홍보팀 •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  
• Tel : 02-398-8000 • 제보 : 02-398-8282 / 02-398-8585 • 휴대폰 YTN뉴스 청취 : 200-2424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합니다.

# 목차

## 02 커버스토리

안녕하세요! YTN 공채 13기입니다.

## 04 <핫이슈 I> 공채 13기

13기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주세요 \_ 강정규  
 살짝인터뷰 ① \_ 김도원  
 살짝인터뷰 ② \_ 김현아  
 공채 13기에 바란다 \_ 김혜은  
 YTN의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 08 <핫이슈 II> 시청률 1위 & 특종기

해군 초계함 사건 보도, YTN이 타 방송사 압도 \_ 홍보팀  
 특종 취재기 ① / 해군 초계함 침몰 특종기 \_ 김문경  
 특종 취재기 ② / 천안함 절단면 단독보도 \_ 이동규  
 특종 취재기 ③ / MLBS로 '살아있는 현장'을 생중계 \_ 시철우  
 특종 취재기 ④ / 천안함 지원 취재기 \_ 송세혁

## 14 <핫이슈 III> YTN 라디오 제2의 개국

왜 YTN이 망경대 길을 제설작업 하느냐 \_ 전병모  
 가정인구 2천만 명... 제 2의 개국 \_ 홍보팀  
 YTN의 가치 불편부당(不偏不黨)을 방송한다! \_ 최수호

## 18 프로그램 탐방

사이언스TV <토마토> \_ 김영록

## 20 사건취재기

부산 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 검거 \_ 김중호

## 22 ZOOM IN

스마트폰 시대에 꺼내는, 한 피쳐폰 이야기 \_ 기정훈

## 24 세계속 YTN

사이판 국제공항에 설치된 YTN TV \_ 이춘희

## 26 지국탐방

춘천지국 \_ 지환

## 28 기획취재 \_ YTN 사람

이재운 뉴욕지국장

## 30 고별

박찬중 국장 정년퇴임

## 32 에세이

프리마돈나 조수미와의 만남 \_ 김재동

## 34 포토뉴스/게시판



# 우리는 공채 13기 이제 YTN은 내가 책임진다!!!

YTN의 주역이 될 신입사원 공채 13기 8명을 최종 선발했다. 높은 경쟁률과 여러 관문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영광의 얼굴들. 이제 그들은 'YTN호'를 같이 타고 넓고 광활한, 때로는 거칠고 험한 무한경쟁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 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경력사원 5명도 같이 선발했다.



<표지사진>  
공채 13기

# 13기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주세요!

“연아가 피겨로 온다면 나는 기사로 울고 싶다”

지난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장수는 갈로 울고, 문인은 붓으로 울고, 악공은 피리로 운다는데..., 저는 기자로서 한바탕 ‘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개척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 산들바람 같은 연아의 스파이럴처럼 자유를 만끽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의 현실은 우울했습니다. 태어나서 30년만에 취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100년만의 경제위기가 닥쳐 기사가 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패색이 짙어 바닥을 칠 무렵 YTN에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스스로 ‘밥그릇’논리에 함몰돼 빈껍데기처럼 살고 있다는 반성이 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형과정에서는 공부보다는 초심을 회복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습니다. 몇 차에 걸친 시험도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탈락’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앞에 YTN을 수식어로 붙일 수 있게 됐더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기자 지망생에게 국내유일의 뉴스전문 채널이란 명함만큼 거창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사회부 생활은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지식과 능력보다는 체력과 임기응변이 관건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한 1년 게릴라가 됐다고 생각하고 즐겨보려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 미리 살찌우고 싶은 건 혼(魂)입니다. 윤리입니다. 정심입니다. 기자란 무엇이고 어때야 하는지, 여러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굶주렸습니다. 머리에 든 게 없고 그물이 성겨서 걸러드는 게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왕성한 식욕으로 양분을 흡수하겠습니다. 물 많이 먹고 광합성 하겠습니다. 깊게 뿌리내리고 무성하게 잎을 피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을 살리고 싶습니다. 기사는 전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역사책을 읽었고, 한 1년 중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땡호와’ 정도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봉산 기슭 골방에 붙여둔 동북아지도를 보며 저곳을 무대로 무언가 하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재일(在日)이나 조선족과 같은 해외 동포를 한민족의 테두리 안에 포섭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포용해 화교나 유대인 네트워크처럼 발전시킨다면 통일문제를 비롯한 국익 추구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외교·통일 분야의 전문기자로 성장해 가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미숙한 제가 13기를 대표해 펜을 쥐었습니다. 저마다 살아온 과정과 개성, 지원 분야는 다르지만,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언론인이라는 지향점을 좇아 높은 경쟁률을 뚫고 YTN에 모여든 청춘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의 선배들 처럼요. 지금은 모든 게 낯설지만 앞으로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 기사와 리포팅 만큼은 연아처럼 자유롭고 예술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팩트(fact)에 입각해서요. 여러 선배들과 인연을 맺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3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정규 공채 13기



김도원 12기 / 사회 1부

## 살짜기 인터뷰 2

### 2년 전 응시생이었을 때는?

응시생일 땐 항상 상식과 국어의 점수가 비중이 높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 눈술이 며칠 전에 연습했던 게 나와서 스테디원들 다 같이 3차가겠다 하며 심지어! 기뻐던! 기억도 나네요!

### 시험을 끝냈을 때 느낌은?

시험을 끝내고는 항상 탈진..... 어차피 5차. 내 이름이 최종 공지에 ‘딱’ 박힐 때까지 결코 끝났선 안 되는 시험이니까요!

### 합격된 후배들에게 하고픈 말?

- 22시, 0시, 6시 보고해라.
- 수습 풀은 용서하지 않겠다.
- 난 안 잤다. (-\_-);;
- 무작정 즐기는 태도가 필수! 백령도 빨리 보내주세요! 꺽!!

## 살짜기 인터뷰 1

### 2년 전 응시생이었을 때는?

잇따른 공채 탈락으로 실의에 빠져있었죠. 이래선 큰일이라는 불안과, 결국엔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자신이 뒤얽힌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 시험을 끝내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백수 진입 초읽기였기 때문에 시험 뒤의 해방감 따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취업의 부담뿐 이었고, 실제로 뭘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네요. 정작 합격 통보를 받고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고 불안해했던 기억만...

### 합격된 후배들에게 하고픈 말?

기자를 꿈꾸며 했던 다짐들, 막상 현실에 진출하면 지키기가 쉽지 않죠. 처음 먹은 그 마음을 항상 잊지 않는 기자가 되길 바랍니다.



김현아 12기 / 사회 1부

# 성공하는 수습들의 다섯 가지 습관

‘성공’에 대한 정의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오늘 할 일에 들떠서 집 문을 열고 나가는 것. 영화 <fame>에서 건진 말이야. 많은 노동자들이 짓눌린 마음으로 출근을 하지. 아침마다 자신이 할 일에 들뜨는 사람이라면, 성공한 노동자라고 생각해. 이제 너희는 기자라는 노동자가 되었어. 수습 6개월, 주머니에 돌덩이를 넣은 것처럼 무거운 나날들이지만 들뜬 일도 많아. 선배라는 이유로 이 글에 무용담을 늘어놓고 싶지는 않아. 다섯 가지만 말할게. 모두 들뜬 마음으로 짹짹 흡수해줄길.

**인사하기** 기자에게는 사람이 생명이야. 사람을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해. 입사 초기에는 사내에서 인사 잘하라는 지적을 많이 들어. 선배들에게 나를 어떤 인상으로 알리는지는 취재의 첫 단계라고 생각해. 취재원을 확보하는 기본기가 되거든. 경찰서는 물론이고 밖에 나가서도 인사 잘하고 명함을 짹짹 돌려.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너만의 방법을 익히는 것. 그게 네 기자생활의 숙제야.

**공부하기** 취직 공부에 질렸겠지만, 더 많은 공부가 남아있어. 우선 기사를 잘 쓰려면 선배들의 기사를 부지런히 읽어. 경찰기자들이 알아야 할 용어와 관련지식도 놓쳐서는 안 돼. CBS 보도국에서 쓴 책 <사건기자 취재파일>을 추천할게(우리도 이런 책 써야 하는데;;). 기획취재를 할 때도 관련 법규와 논쟁거리를 공부하다 보면, 고된 수습생활 속에서도 앞의 기쁨도 느낄 것이야.

**재대로 놀기** 그래도 놀긴 놀아야지. 회식하면서 놀 땐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열심히 놀아. 동기들끼리 노래방에서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면서 신나게 놀다보면, 몇 시간 폭 자는 것보다 더 몸이 재충전되기도 하거든.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 하는 법. 화끈하게 놀 것!

**블로그하기** 기자에게 또 다른 생명은 기록물이야. 특히 수습 6개월 동안에는 정말 많은 일들을 체험하는데 하나하나 기록을 해 봐. 경찰서에서 만난 별의별 용의자들, 말싸움 늘어지는 형사들, 알미운 타사 수습들, 인상깊은 취재원들. 모두 너의 글감이라고 생각하고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정리하길 권한다. 하루하루 더 재밌어진다에 올인!

**단독하기** 대체로 수습 때 단독은 큰 건 아니야. 하지만 교통사고 한 건이라도 단독을 해봐야 그 기쁨을 알지. 너희 모두가 단독의 기쁨을 느껴보길 바란다. 선배들 가운데는 수습 때 특종상 받은 사람도 많다는 걸 명심해. 처음에는 선배들이 이끌어줄 거야. 일하는 게 즐거운, 반드시 ‘성공’한 기자가 되기를 바란다. 명심해. 즐겁지 않은 건 독이야.



김혜은 공채 12기 \_ 사회1부



## 강정규

- ▶ 1981. 7. 4
- ▶ 방송기자
- ▶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배봉산 기슭에서 역사책 읽다가 온 백면서생입니다. 중국에 한 1년 다녀와서 '니하오' 정도는 말할 수 있고, 동북아지도 방에 걸어두고 저곳을 무대로 뭔가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앞으로 통일, 외교 분야에서 전문기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 이하린

- ▶ 1985. 1. 5
- ▶ 방송기자
- ▶ 연세대 신방과

암팡진 신입기자 이하린입니다. YTN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만큼 하늘이 주신 이 선물에 늘 감사하며 방송하겠습니다.



## 김평정

- ▶ 1982. 2. 6
- ▶ 방송기자
- ▶ 서울대 지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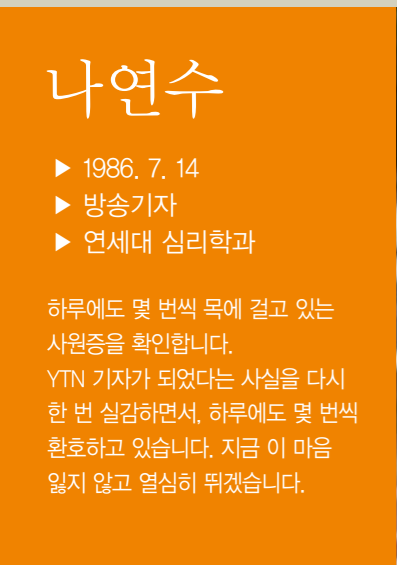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수화기를 든 채 90도로 꾸벅 절했습니다. 3년 만에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기쁩니다. 선배님들이 자랑하고 싶은 후배가 되겠습니다!



## 홍성노

- ▶ 1983. 4. 26
- ▶ 촬영기자
- ▶ 경희대 언론정보학

트라이포드를 다리삼아 카메라의 렌즈를 눈 심아 세상을 보겠습니다. 선배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YTN 13기가 되겠습니다.



## 나연수

- ▶ 1986. 7. 14
- ▶ 방송기자
- ▶ 연세대 심리학과

하루에도 몇 번씩 목에 걸고 있는 사원증을 확인합니다. YTN 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환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 잃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 김성두

- ▶ 1984. 1. 30
- ▶ 방송기술
- ▶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과

YTN HD!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화질과 플랫폼을 뛰어넘어 뉴 미디어를 선도하는 차세대 YTN을 만들겠습니다!



## 안윤학

- ▶ 1981. 4. 5
- ▶ 방송기자
- ▶ 서강대 사학/정외과

합격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어머니도, 누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대성통곡! 이제는 시청자를 울리겠습니다. 선배님들은 웃게 하겠습니다. 대박특종!



## 김대근

- ▶ 1981. 12. 21
- ▶ 방송기자
-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카메라는 무기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크리스틴 최의 말입니다. 그는 이런 신념에 따라 한 중국인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수 년간의 노력 끝에 범인들을 법정에서 세웠습니다. YTN의 기자로서 저의 리포트가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무기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 YTN's New faces, first timers & the experienced



## 최성하

- ▶ 1983. 3. 1
- ▶ 마케팅기획팀
- ▶ 한양여대 영어학과
- ▶ CTS기독교TV 광고팀

YTN을 향해 5년을 달려왔습니다. 꿈은 이루어졌고, 이제 창공을 향해 비상할 때입니다. 저 높은 곳까지 날아올라 최고의 자리에 YTN과 함께 하겠습니다. YTN의 보배가 되겠습니다.



## 강창국

- ▶ 1975. 7. 8
- ▶ 정보시스템팀
- ▶ 건국대 물리학과
- ▶ 영상 송출용, 인코딩 서버 제작

먼저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YTN을 티비로만 시청하다 이렇게 들어와 보니 정말 어리둥절 하기도 하고 또 새롭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뛰는 강창국이 되겠습니다. ^^



## 김영준

- ▶ 1979. 2. 21
- ▶ 경영지원팀
- ▶ 중앙대 상경학부
- ▶ 회계, 자금 업무

YTN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은 새로운 환경에 좀 어리둥절 합니다. 방송으로만 보던 곳인데 제가 와 있으니.....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노력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 조원위

- ▶ 1979. 5. 14
- ▶ 법무팀
- ▶ 상지대 법학과
- ▶ 법무법인

YTN 바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느낀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YTN 법무팀의 일원으로써 처음부터 배우는 자세로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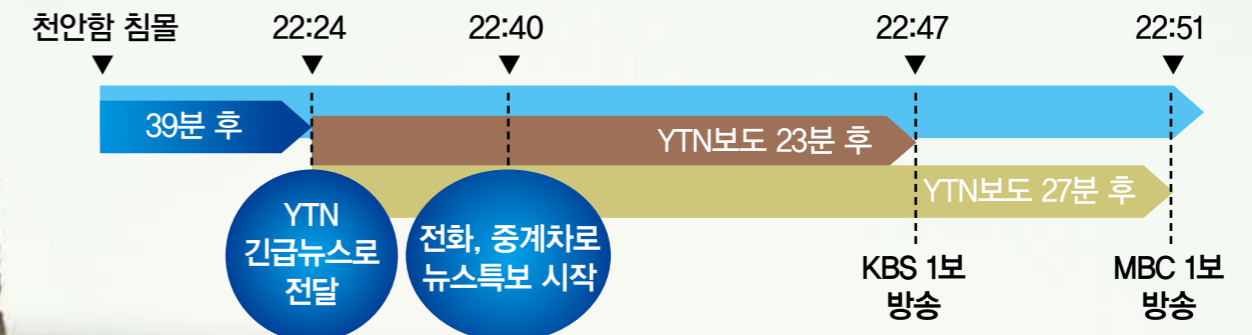
## 한기종

- ▶ 1975. 7. 7
- ▶ 매체협력팀
- ▶ 경기대 산업공학과
- ▶ t.cast (태광그룹 MPP)

주변 선배들에게 좋은 직장으로 옮겼다고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고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방송사별 1보 방송 시각



# 시청률 압도적 1위... 가장 빨리 1보 전해

## 해군초계함 사건 보도, YTN이 타 방송사 압도

뉴스전문채널 YTN이 3월 26일 발생한 해군 초계함 침몰 사건을 가장 신속하고 심층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이후 시청률은 케이블 전체 100개 채널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YTN은 3월 26일 오후 9시 45분 사고가 일어난 뒤 39분 후인 10시 24분,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제일 먼저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그 후 10시 40분 취재기자의 전화 연결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중계차를 연결해 사고 소식을 시시각각 방송했다.

이에 비해 KBS는 YTN보다 23분 늦은 밤 10시 47분에, MBC는 27분 늦은 10시 51분에 1보를 방송하는 등 YTN

이 속보 처리에서 타 방송사를 압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이 밤 11시 7분에 YTN을 인용해 사건을 전하는 등 외신의 인용보도도 이어졌다.

YTN은 사건이 일어난 뒤 곧바로 뉴스 특보체제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소식을 전함으로써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 YTN 뉴스특보가 시작된 3월 26일 이후 지금까지 케이블 전 채널 가운데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에 따르면 YTN 시청률은 27일 1.56%, 28일 1.24%를 기록해 케이블 100개 채널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순간 시청률은 28일 오전 9시 17분 5.66%를 기록했다.

### ❖ 천안함 침몰 YTN 특종

주요일지	일자	평균시청률	순간최고점유율
<b>YTN 특종 1</b> 해군 초계함 침몰중 1보 특종 (김문경기자 단독 특종)	천안함 침몰	3.26(금)	
	실종자가족 평택 2함대로 집결	3.27(토)	1.556%
	천안함 함수, 함미 부분 발견	3.28(일)	1.242%
	함미 부분 최초 잠수부 투입	3.29(월)	1.577%
	UDT대원 한주호 준위 사망	3.30(화)	1.498%
	TOD 전체 화면 추가 공개	4.1(목)	1.314%
	쌍끌이 어선 투입, 금양호 침몰	4.2(금)	1.531%
<b>YTN 특종 2</b> 남기훈상사 시신인양 단독 취재 (곽영주기자 촬영, 강근배기자의 판단)	인양작업 돌입	4.3(토)	1.867%
	인양작업 본격 시작	4.5(월)	0.877%
	천안함 생존장병 기자회견	4.7(수)	0.935%
	실종가족 생존장병 만남	4.8(목)	0.936%
<b>YTN 특종 3</b> 함미 절단면 모습 단독 취재 (이동규기자 촬영)	함미 인양 완료	4.13(화)	0.874%
	함수 체인 2줄 연결	4.15(목)	1.381%
	함수 인양 완료, 평택 이동	4.16(금)	1.306%
		4.24(토)	1.528%



## 백령도 순찰 해군 초계함 침몰중

그날 밤은 사회부 야근이었다. 밤 뉴스 모니터를 끝내고 김미선 기자의 야근 출연 원고를 보고 있을 무렵 진동 모드로 컴퓨터 옆에 던져 놓았던 휴대전화가 심하게 떨었다. 기사 출고가 급한 상대라 누구일까 걸눈질을 했더니 평소 안부를 주고받던 낚시꾼(?)

이었다. 웬일일까? 생각 없이 다시 고개를 돌려 기사를 보다가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다.

“지금 뭐하고 있어?”

“어, 야근중인데?”

“서해쪽에서 군함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YTN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군함이라니?”

“한 번 알아봐. 나도 잘 모르겠다”

곧바로 지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둘러봤다.

“서해 된 일 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순간 머리가 쭈뼛했다.

“군함이라는데 침몰했습니까?”

해상에서의 사고는 뻔한 것이어서 마치 다 아는 듯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뜻밖의 대답이 들려 왔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다. 확인을 거듭하면서 사고 시간과 함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침없이 속보 자막을 띄웠다.

‘백령도 순찰 해군 초계함 침몰중’

그 때가 10시 24분쯤이다. 그 ‘낚시꾼’과의 통화 이후 불

과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다. 팩트를 확인한 순간 속보를 띄우기까지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 나에게 사실을 확인해준 취재원들과의 신뢰관계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11명 동해 귀순’이라는 1보를 간발의 차이로 SBS에 넘기면서 비롯됐다. 나는 당시 동해로 11명의 북한 주민이 귀순해 왔다는 취재원의 구체적인 팩트와 제보가 있었음에도 흘려들었다.

그렇기에 확인 작업도 느슨했고 20~30분이 지나고 나서 속보를 띄울 무렵 SBS에 ‘귀순 자막’이 뜨는 걸 보고 1보를 빼앗긴 뒤 나와 신뢰관계로 맺어진 취재원들은 무조건 믿기로 다짐을 했다. 물론 제보 내용에 대한 거듭된 확인 작업은 끝까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속보를 띄우고, 전화 연결이 끝나도 다른 방송은 물론 연합에서조차 해당 기사는 올라오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내가 오보를 질렀나’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믿고 있던 취재원들이었기에 패념치 않았다. 야근국장인 한영규 선배의 지휘로 국방 관련 분야엔 다소 생소했을 전준형, 김미선, 이승현 기자의 지원사격을 받아가며 전화 연결과 출연 준비를 이어 나갔다.

1보 이후 20여 분이 지날 무렵 연합은 물론 공중파들의 화면에서 차례로 속보가 떠올랐다. 타사들이 1보를 띄울 무렵 YTN은 이미 특보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보도국엔 전사(?)들이 속속 모여 들고 있었다.

다음날 점심때쯤 일을 마치고 퇴근했지만 기자로서 특종을 했다는 기쁨보다는 마음이 무거웠다. 46명 실종이라니... 피해가 컸다. 그날 밤 백령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 다음날 밤 가위에 놀릴 정도로 20여 년 전 군 생활 기간 동안 지겹게 바라보던 밤바다가 내내 떠올랐다. 실종자 구조와 선체 인양 작업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1보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김문경 차장 정치부

## 궁금해 하던 절단면 사진이 내 눈앞에...

한창 인양 작업이 진행되던 4월 12일, 함수 작업을 담당 한 작업선 중앙호가 기상악화로 인해 대청도로 피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현아 기자와 함께 대청도로 들어가게 됐다.

4월 13일 함미부분 인양 작업을 했던 유성호 선원들도 대청도로 피항하게 되었는데, 천안함의 절단면이 너털너털하다는 유성호 직원의 얘기를 전해 듣고는 유성호 직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나섰다. 무작정 배로 찾아가 만난 유성호 직원에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건네다가 슬쩍 절단면 상태에 대해 물었다. 나를 직원 숙소로 데려가 서슴없이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보여 주었다. 순간 무언가 있겠지하고 기다리는데 그 직원은 ‘이것 봐 이게 너털너털 하지’하며 절단면이 찍힌 사진을 내게 보여줬다.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 하던 함미 부분 절단면 사진이 내 눈앞에 있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다리도 떨렸지만 담담한 척 ‘또 없어요’ 하고 물어 본 뒤, 없다는 말을 듣고는 그 사진을 내 카메라로 일단 찍었다. 그리고 그 카메라에 있는 사진 중에 절단면이 있는 사진은 그 한 장이 유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자리를 떴다.

일단 사진은 확보했지만 송출이 문제였다. 대청도는 그 흔한 PC방 하나 없었고 해경에 있는 컴퓨터를 빌려 써야 했는데, 해경은 타사 기자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고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아이폰의 인터넷 테더링을 이용하여 송출하는 방법이었다. (아이폰과 컴퓨터를 블루투스나 usb로 연결하여 아이폰을 모뎀처럼 사용하여 3G 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쓰는 방법) 숙소에서 테스트를 해보니 속도가 좋지 않아 파일을 최대한 작게 하여 1보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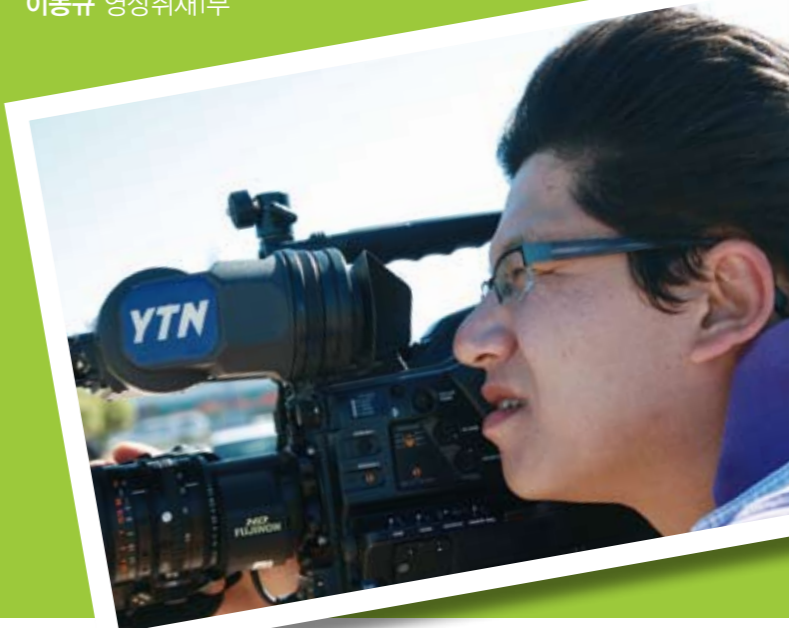
일단 1보를 보내고 나서 혹시나 그 사진을 타사에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그 직원을 찾아갔다. 사진을 다시 주든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하니 그 직원은 귀찮다는 듯이 나를 돌려보내려고 했다. 그래도 버티고 있었더니 ‘좋은 말로 할 때 가라’면서 겁도 주었다. 할 수 없이 나와서 음료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갔다. 그 직원은 타사에

절대 주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 자기가 주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의리를 지키라고 부탁했다. 나는 굳게 약속을 하고는 그 직원과 헤어졌다. 돌아오는 길 구멍가게에선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 YTN의 단독입수 사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알 듯 모를 듯 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조용했던 대청도와는 달리 백령도와 서울은 새로운 사진의 등장으로 인해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후배가 전해왔다. 1보 방송 후 타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경 파출소에 잠시 들르게 되었는데, 해경 소장이 사진 출처에 대해 물었지만 그 직원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끝내 함구했다.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일체 무시한 채 뜬 눈으로 하룻밤을 보냈고, 이튿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백령도로 돌아왔다.

유성호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이강진, 김현아를 비롯한 백령도에서 함께 고생한 모든 선후배들 덕에 중요한 뉴스가 되어준 사진을 입수하게 되어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천안함 46명 용사의 명복을 빕니다.

이동규 영상취재1부





# “YTN이 대체 무슨 일을 한거야?”

“방금 전에 데스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도대체 뭐야?”  
(타사 기자)

“아니 지금 어떻게 현장이 나간 거예요?” (해군 관계자)

백령도의 관문인 용기포 선착장에 모여 있던 취재진의 관심은 온통 YTN을 통해 공개됐던 천안

함 침몰 현장에 있었다. 백령도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지 5일째. 원인을 알 수 없는 참사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현장을 ‘가까이’, ‘실시간으로’ 공개한 언론사는 전무했다. 실종된 장병과 스러져간 천안함을 수색하기 위한 명분으로 백령 앞바다는 철저히 통제됐고, 예년 같았으면 까나리 철을 맞아 점을 이루고 있어야 했던 어선 군들은 해병대 수색 보트로 대체된 지 오래였다. 기자들의 망원렌즈를 통해서만 보여졌던 백령도 앞바다. 군의 의지와 때마침 좋지 않았던 기상도 YTN 취재진의 열의 앞에서 두텁게 감춰던 베일을 벗어야만 했다.

‘MLBS(Mobile Live Broadcasting System)’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휴대형 실시간 생방송 시스템. 흑자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Major League Baseball)로 오인할 수 있는 이 장비는 천안함 수색 현장과 주변의 해군 함정들을 ‘가까이’,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추신수의 홈런보다 더 강한 인상을 시청자에게 전해줬다. 매시간 현장을 중계하면서도 시스템의 문제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취재진의 고심도 이 장비의 도입으로 단숨에 해결됐다. ‘데모 씨’로 불리는 핸드헬드와 실시간 방송을 위해 편집을 하면서 취재하는 촬영기자의 임기응변. 순간순간 변하는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는 취재기자의 사전 취재력과 정확한 현장 파악 능력. 촬영기자의 허리에 위태롭게 달린 조그만 상자와 카메라에 연결된 두 개의 라인이 전하는 소식은 기술과 인

력의 시너지를 제대로 보여줬다. 백령도 천안함 침몰 사고 현장 매시간 생방송 중계, 기상악화로 인한 수색 작업 난항 상황 실시간 방송, 고인이 된 한 준위를 비롯한 군인들의 피땀 어린 수색 작업 공개, 민간 인양업체의 대청도 피항, 함미와 함수 인양 장면 근접 생방송 등 MLBS를 이용해 시청자에게 전달된 소식은 그야말로 24시간 뉴스를 전하는 YTN의 방송 모토에 ‘딱’ 어울리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살아있는’ 화면이 YTN 뉴스를 통해 나가고, 가려져 있던 정보가 YTN 뉴스를 통해 세상에 노출되는 순간. 백령도의 진실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언제든 시청자가 필요한 뉴스를 전해야 하는 YTN, 정확화된 뉴스가 아닌 다양한 포맷의 뉴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열린 생각, 24시간 모두를 ‘Live’ 뉴스로 할애할 수 있는 전문성 등 ‘MLBS는 이 모든 것을 구현 할 수 있는 장비임에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천안함’ 보도 적재적소에서 사용됐다. 천안함 보도 막바지에도 MLBS는 그 활용성에서 빛을 냈다. 전 방송사가 Pool을 했던 중계방송이 멈췄던 시간. 영면에 든 장병들의 운구행렬이 대전 현충원을 향하고 있던 때. 우리 취재진은 운구행렬이 지나가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현재의 현장’을 방송할 수 있었다. 물론 YTN이 아닌 다른 채널에선 이미 과거가 된 화면이 방송되고 있었다. MLBS를 이용한 방송에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MLBS를 이용한 방송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HD 방송에 걸맞지 않은 SD급 화면, 휴대전화 통신망이 터지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간의 제약, 현장을 취재해야 하는 촬영기자의 중계 참여로 인한 중요한 순간의 낙중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장비의 다양화에 발맞춰 우리 나름의 가능성과 전문성에 어울릴 만한 방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때다.

시철우 영상취재부

# 대관령 넘어 평택까지 240km의 횡단 지원!

강릉에서 대관령을 넘어 평택까지 240km,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을 가로지르는 횡단 지원이었다. 지난 96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부터 산불, 태풍 같은 각종 재난재해까지 취재 지원을 받는 데만 익숙했던 터라 거꾸로 지원은 생경했다. 평택에 도착해 처음 마주한 광경도 낯설었다. 해군 2함대 기자실은 취재진들로 가득했다.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그 속에서 찾아낸 대전과 대구지국 지원팀은 전투와 닮은 3박4일의 고된 일정에도 동료들을 뛰어넘는 반가움으로 우리를 반겼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 떠나며 지은 안쓰러워하는 표정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우리의 숙소는 웬만한 여인숙도 코웃음 칠만 한 3만 원 짜리 여관방이었다. 그러나 열악한(?) 숙소는 문제도 아니었다. 약명 높은 ‘탱크’ 코골이 김동철 선배는 격리했지만 복병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같은 방의 오디오맨과 운전기사 역시 만만치 않은 코골이의 달인이었다. 박자와 음정도 서로 다른 기괴한 하모니가 귀를 더욱 괴롭혔다. 눈 붙일 틈을 주지 않았다. 참다못해 새벽에 귀마개를 사러 몽유병환자처럼 거리를 쏘다녔지만 허탕이었다. 결국 거의 날을 샌 뒤 벌건 눈의 나를 기다린 건 뽀뽀한 중계일정이었다. 비교적 편한 오후 시간대를 맡았지만 잠을 설친 탓에 만만치 않은 강행군이었다.

마이크를 든 나는 위병소 초병과 함께 평택 해군 2함대 정문 앞을 지키고 또 지켰다. 큰 상황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 일정은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가는 듯했다. 올 것 같지 않았던 지원 나흘째 마지막 날. 조금 과장하면 제대날을 맞은 말년 병장의 심정과 비슷했다. 점심도 혼자 김밥으로 때우며 마지막 의욕을 불태웠다. 교대를 불과 3시간 정도 앞둔 저녁,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천안함 함미에서 처음 시신이 발견된 것이었다. 고 남기훈 상사였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몇 시간 뒤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수중 수색 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눈물의 결단을 발표했다. 고 한주호 준위의 죽음에 이어 수색에 참여했던 어선까지 실종되면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짐작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힘든 결정을 내린 가족들의 용기에 소름이 돋았다. 춘천과 부산에서 온 교대팀과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할 만큼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평택에서의 마지막 밤은 끝났다.

다시 강릉으로 돌아가기 위해 취재차에 몸을 실었을 때는 새벽 1시였다. 눈을 떠보니 강릉이었다. 몸은 강릉이었지만 며칠 동안 마음은 여전히 평택에 남아 있었다. 평택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는 습관도 이어졌다. 아마도 이번 취재 지원에 대한 여러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희생 장병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추신) 평택에 지원 나가 고생 많았던 지국 선후배들과 불박이 고한석, 이승준 기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혁 강릉지국



# “왜 YTN이 망경대 길을 제설작업 하느냐?”

**송신소 이전 공사** 송신소 공사는 크게 철탑 공사와 기계실 공사로 나뉜다. 철탑은 우선 YTN라디오만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규모를 25m 높이로 하고 나중에 보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추후 임차자가 나타나면 부가사업을 위해 보강할 예정이다. 기계실은 철탑 조립식으로 약 24평 크기로 지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3월에 폭설이 3번이나 내리는 등 날씨가 변덕을 부렸다. 이 때문에 첫 전파 발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인프라팀 전 직원이 매번 이른 아침부터 제설작업에 동원됐다. 이유를 모르는 등산객들은 “왜 YTN이 망경대 오르는 길을 제설작업 하느냐?”며 이상스레 생각했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 좋은 일이 있을 징조라는데 YTN라디오가 정상궤도 진입에 곧 성공하리라고 본다. 기술국 인프라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산 너머 산... 지나간 시간들** 지난해 1월초 합참에 망경대 송신소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사용 허가신청을 냈다. 입주기관 8개사(대부분 국가 주요 기관)는 전파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본 평가에서 이상이 없어야 YTN라디오 입주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전파환경영향평가 4회, 설명회 1회, 그리고 개별 접촉 수십 회 등의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다.

그해 3월 ‘계획정파’가 있던 날 새벽, 삼성산 송신소에 국군 등 관계기관 8개사 18명이 모였다. 이들 기관의 통신설비는 30W급인데 비해 YTN라디오는 100배 높은 3,000W급으로 전파간섭 등의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조그만 흠이라도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망경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들 기관과 모의 전파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장비에 영향이 없음을 하나하나 확인시켜주었다. 8:1의 싸움이었다. 이러한 진통을 겪으면서 허가 신청을 낸지 7개월만인 지난해 7월에 망경대 사용허가를 국군으로부터 받아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변경허가엔 동일 주파수인 춘천 MBC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방통위는 전파법에 “후발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방송구역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춘천MBC의 동의를 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춘천MBC를 상대로 5개월 가까이 설득과 협상을 벌였다. 우여곡절 끝에 12월 중순 방통위의 중재를 거쳐 YTN라디오는 12월 30일에 송신소 변경허가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3월 망경대 송신소 이전 공사의 첫 삼을 뜬 것이다. 송신소 관계기관과의 협상은 말 한마디의 실수나 절차상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다. 조심스럽게 살얼음판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이 때문에 수 없이 많은 날을 가슴 쓸어내려야 했다. 처음 94.5MHz를 발사하는 데 10년 걸렸는데 변경허가는 2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고 싶다. 이제 우리 앞에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다. YTN라디오는 빠른 시일 내에 가평·양평·광주·여주 등 방송권을 확대해 YTN 뉴스FM의 전국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따뜻한 봄이다. 이번 주말 청계산 등산할 때 망경대 송신소 주변을 둘러 보길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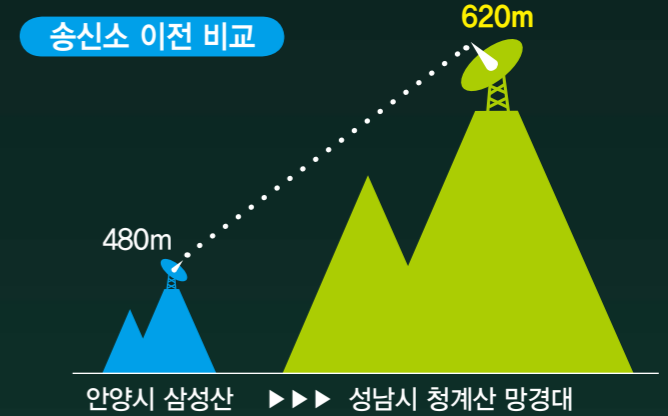


전병모 YTN라디오 방송기술팀장

20,000,000 people

# 가청인구 2천만 명... 제 2의 개국

94.5MHz 국내 유일의 보도전문 YTN라디오의 방송권역이 서울 전역과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YTN라디오는 지난 3월 삼성산 송신소를 청계산 망경대로 이전했다. 철탑 공사 등 송신소 이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 강남 지역과 성남·분당·과천·의왕·군포·안산·구리·의정부·동두천·양주 등이 방송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가청인구도 종전 960만 명에서 2천만 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써 YTN라디오는 보도전문 라디오 채널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YTN라디오는 방송구역이 협소한 청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광고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YTN라디오는 빠른 시일 내에 양평·광주·여주 등 수도권 나머지 난청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음영지역 해소 사업을 실시하고 YTN 뉴스FM의 전국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가청 지역 확대** 960만 명 ▶▶▶ 2,000만 명



YTN라디오는 ‘제2의 개국’이라 할 수 있는 송신소 이전과 방송권역 확대를 계기로 청취자들에게 보다 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시사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94.5MHz

94.5MHz는 YTN라디오의 주파수입니다.



## YTN의 가치! 불편부당(不偏不黨)을 방송한다!

YTN 라디오가 개국을 한 지 2년이 됐다. YTN 전 사원의 오랜 염원을 안고 출범한 YTN 라디오가 개국 2년을 즈음해 송신소 이전으로 명실 공히 2천만 가청권 시대를 맞게 됐다. YTN 라디오는 2천만 청취자 시대에 발맞춰 청취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전략적 봄개편을 단행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개국부터 지금까지 약 2년간 아침 출근시간대를 담당할 출발 새아침 팀을 전면 교체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년간을 매일 새벽이슬을 맞으며 방송을 위해 애쓴 강성욱 기자 대신 YTN 해설위원실의 최수호 위원이 진행을 맡고, 최강 스태프들이 새로 투입됐다.

라디오는 매체 특성상 출퇴근 시간대가 가장 프라임 타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라디오 방송사들이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공중파 라디오 방송사 간 아침 시사 프로그램 전쟁에 YTN이 뛰어 들었으니, 텔레비전의 비약적 도약만큼 YTN 라디오도 출근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을 평정해 시사 프로그램의 지존으로 자리 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게 YTN 라디오 종사자 전원의 인식이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팀의 고민은 선두 주자로 자리 매김한 아침 시사 프로그램들의 아성을 어떻게 무너트리느냐가 관건이었다. 봄 개편과 함께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팀에 합류한 PD와 기자, 작가는 타 방송사와의 변별력을 찾던 중 YTN TV가 구축한 불편부당한 보도 이념을 출발 새아침 프로그램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차별화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편 이후 지금까지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은 출연자 선정부터 시작해 방송 진행에서도 불편부당한 방송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청취자들의 반응도 제작진의 기대에 부응해 불편부당한 방송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과 PD의 노하우와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한다

특히, YTN 보도국 기자들이 생산해 낸 정확하고 빠른 기사들을 프로그램 중간 중간 소화해 내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은 타 방송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YTN 만의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포트 기사와 단신 기사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보도국 국제부의 박신운 기자의 경우 밤사이 들어 온 따끈따끈한 외신 소식을 낭랑한 목소리로 전달해 주고, 정치부와 경제부에서 매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담당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요 뉴스를 심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또, 천안함 인양과 같은 대형 뉴스의 경우 백령도 현지에 파견된 정찬배 앵커가 TV 이원 방송을 마친 뒤 라디오에 전화 출연해 현지 상황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해 준 것은 기자와 PD가 함께 만들 수 있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만의 최대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타 공중파 방송사 역시 역사적으로 기자와 PD가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도한 사례는 꽤 있지만, 방송 제작에 대한 고정관념이 서로 다르다 보니 이견만 확인한 채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의 경우 기자와 PD가 각자 가진 방송 노하우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제작을 하다 보니,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현재 많은 출근길 청취자들이 94.5MHz로 채널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고, 이처럼 편파 방송에 피로감이 쌓인 청취자들이 YTN 라디오의 고정 팬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공중파 라디오 방송사 간 경쟁에서 선두 자리를 탈환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이 곧 출근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지존으로 우뚝 서 YTN 명성과 가치를 제고할 날이 손에 잡힐 듯하다.

최수호 부국장 해설위원실

# ‘재테크’보다 중요한 ‘건강테크’ <토마토>에서 시작하세요!

편안한 노후를 위해 오늘도 재테크에 열심인 당신! 건강에는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한국의 평균 수명은 약 80.1세, 현재 인간의 한계 수명은 약 130~150세.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보다는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재테크’를 할 때처럼 ‘건강테크’ 역시 되도록 일찍 시작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면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등 노인들이 걸리기 쉬운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토마토>다.

건강과 행복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다...  
사이언스TV 장수 프로그램이 되기까지

<토마토>는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나침반이다. 지금까지 <토마토>에서는 암, 당뇨병,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비롯해 척추질환, 돌발성난청, 안면기형 등의 다양한 의학정보를 제공하며 건강한 삶의 방법을 제시해왔다.

더 나아가 지난 2월, 100회를 맞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무료 치료의 기회를 제

공하는 <희망 메디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주인공은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던 10살 지현이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4살 영진이. 마음껏 달리고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비록 남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작진과 의료진이 느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나의 질환을 다룰 때마다 마치 그 병에 걸린 것처럼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는 토마토 팀원들은 시청률과 방송의 질 그리고 시청자의 건강 앞에 자신의 건강은 모두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큰 질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내 몸의 이상 신호 앞에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 지 돌아보고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 보는 건 어떨까?

김영록 토마토PD 사이언스TV 제작팀



## 탐방 공책, “물어봤습니다~”

요즘 제철을 맞은 채소의 우등생, 토마토가 마트의 과일계를 접수해 설 자리가 없어진 과일들의 대표 사과가 마트를 찾은 토마토의 터줏대감 이무송씨와 안방마님 정혜신 원장에게 토마토 대신 자기를 사가라며 야단이 다. 최근 부쩍 몸이 노쇠해짐을 뼈저리게 느껴 토마토가 아니면 안 산다는 이무송씨에게 정혜신 원장이 물어봤습니다. **“회춘(젊음)”**

영양이면 영양! 맛이면 맛!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토마토인데... 프로그램이 어렵다는 이유로 3~4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작가들로 한숨만 늘어가는 담당피디. 점점 새하얘지는 머리 때문에 고민이라는 담당피디에게 토마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나”**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반복되는 회의로 회의감에 빠지는 작가들의 머리에서 김나는 것은 기본. 오늘도 변함없이 고된 배를 부여잡고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꼬르륵 하는 배꼽소리에 심드렁해진 작가들에게 담당피디가 물어봤습니다. **“밥줄”**



6세 이하 유아일 때 감염되면  
가기처럼 지나감



메덱스(MedX)  
척추근기능검사를 통해 적절한 운동 강도 제시



# 부산 이모양과 은영이, 동은이...

김길태가 사상경찰서를 떠나던 날 저는 그 늪을 꼭 붙들고 있느라 놓고 있던 제 '정신줄'을 잡았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진 말건 그 이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기사작성기에 로그인 할 때 내 이름 대신 '김길태'라고 써 놓고 오류 메시지가 뜨면 '비밀번호 맞게 입력했는데 왜 이러지?'하며 비밀 번호만 여러 번 고쳐 보다가 제 이름이 '김종호'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할 정도로 '정신줄'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전문 용어로 설명하면 '정신줄 상실 3기' 정도는 될까요? 그런데 난리 통에서도 이 생각만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이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면 사보 쓰라는 요구가 올 것이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김길태가 검거돼 부산 사상경찰서로 압송되는 장면에서부터 경찰의 수사 발표까지 사건의 상당 부분을 라이브로 감상한 시청자 가운데에는 다른 언론사 기자도 있었습니다. 취재 현장에 가지 않고도, 다른 기자의 기사를 참고하지 않고도 YTN 덕분에 취재를 수월하게 했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으니 '이거 참 쓸쓸하구만'. 어쨌든 김길태 때문에 생긴 부산지국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원군의 고생과 공적은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안함'으로 전사적인 비상상황이 곧 닥쳤으니 입을 여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나고 나면 금방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하루가 촘촘하게 지나갔기에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지나가거나 한참을 머물다 갔습니다. 그때 한참 머물다간 생각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서론이 긴가요?

2월 27일 경찰이 처음 실종사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거창하게 수사본부까지 만들고 실종 소녀를 찾겠다는 것이었는데 치안센터에서 브리핑할 때까지만 해도 주말이라 기사 쓸 만한 아이템이 없는 기자들을 위한 경찰의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웬만한 실종 사건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종된 소녀의 집에 가보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 보니

그냥 실종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단순 실종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 동네 한 바퀴 돌고 내려가던 길에 기자의 감이랍시고 촬영기자 선배에게 건넨 그 말은 그대로 사실이 됐습니다. 그때 문득 이은영, 박동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기자가 되고나서 처음 취재한 실종사건의 주인공들인데 지난 2006년 함께 사라졌고 여전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관공서 알림판 등을 보면 실종 아동을 찾는 포스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간혹 이 두 여자 아이를 다시 보곤 했지만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 이 아이들' 그러고는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게도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 생겨서일까요? 이번 사건을 취재하는 내내 은영이와 동은이 부모가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꼼꼼한 범적을 막지는 못했지만 연인원 4만 명 가까운 병력을 동원해 이모양 시신을 발견하고 범인을 잡아 자백도 받아내는 것을 누구보다 자세히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을 탓하는 언론을 통해 경찰이 실종자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보도를 더욱 마음 아프게 봤을 겁니다. 은영이와 동은이가 사라진 마을에도 시골 읍내와 농촌이 접해있어 빈집이 많은데 실종 초기에 경찰에서 빠른 판단을 통해 대규모 인원을 투입했다면 적어도 사건 해결의 작은 실마리나마 찾아내지 않았을까? 감히 넘겨 짚어본 생각이지만 은영이와 동은이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잃어버린 자녀를 찾지 못한 세상의 많은 부모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빈민가에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자 아이 하나 없어졌다는 식으로 문혔을 사건. 초등 대치가 소홀하긴 했고 이후 수사도 실통치는 않았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중하게 다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양은 은영이나 동은이 옆 자리를 차지하고 지나가는 수 많은 무심한 시선을 느끼며 저 세상에서 더욱 외로운 눈물을 흘렸을 지도 모릅니다. 큰 일이 있고나면 '잊지 말자',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말

자', '개선하자'고 말하지만 정작 말한 자신도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바쁘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제 머리에 머물다 갔던 생각, 감히 넘겨 짚어본 실종 아동 부모의 마음이 금세 또 나를 떠날지, 아니 내가 놓아버릴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사건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짧은 글을 맺으면서 이모양의 명복을 빕니다.

또 세상에 많은 은영이와 동은이가 따뜻한 부모의 품으로 하루 속히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fin.

김종호 부산지국



## 김길태 사건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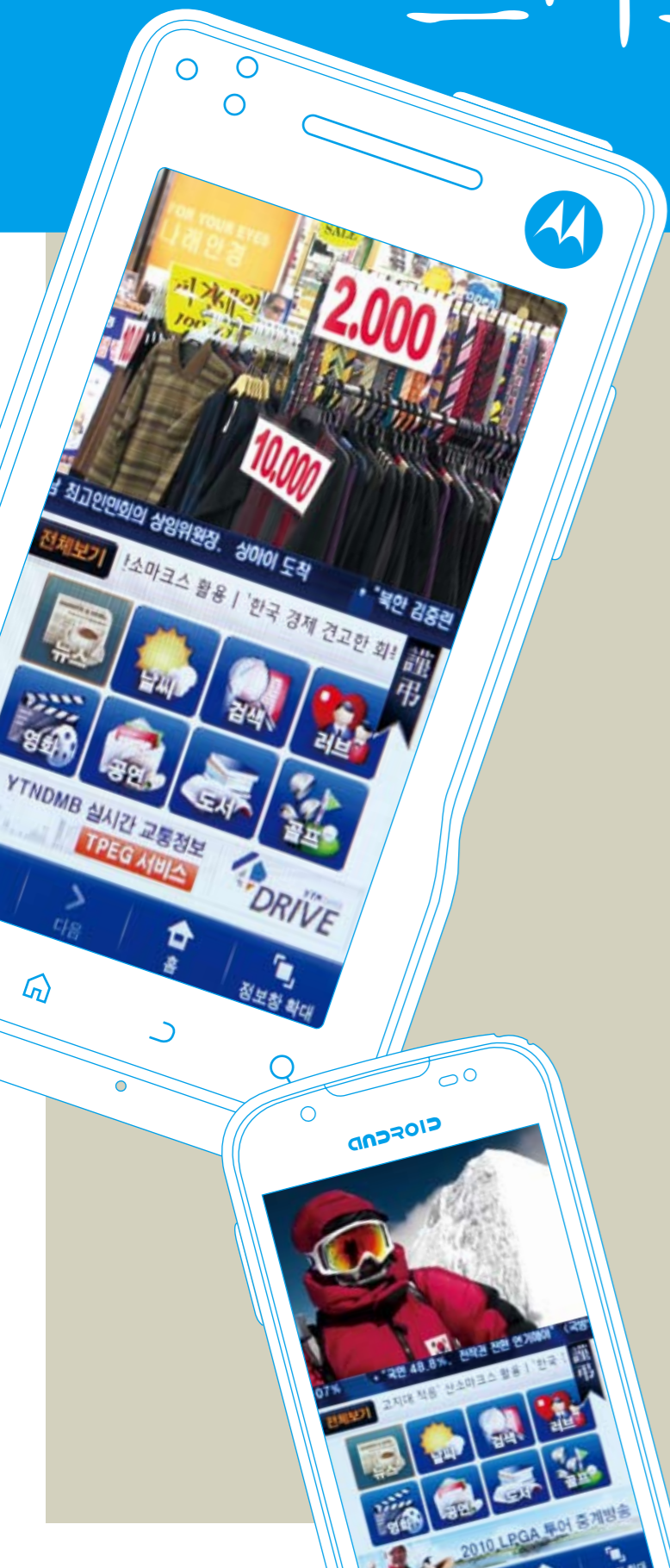
2월 24일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 끌어 온 김길태 사건이 이제 경찰의 종합수사결과 발표와 검찰 송치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까지 대과 없이 끌어 온 데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대구, 울산, 청주 지국에서의 인력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중계와 리포트제작 등 많은 부분을 분담해 줘서 한걸 부담을 덜었습니다. 물론 사회2부에서도 출연과 리포트 제작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사회1부에서는 리포트 지원뿐 아니라 검거 당일 출연까지, 부산지국에서 저야 할 짐들을 나눠서 한걸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이외에 특파원까지 나서서 관련 기사를 제작해 양적인 면에서도 공중파보다 결코 밀리지 않게 했습니다. 항상 지역에서 기사를 제작해도 저녁뉴스에서 공중파들의 물량 공세에 좌절할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범행 일부 자백을 하던 날 중계차 철수를 지적해 수사본부 브리핑 생중계를 무사히 방송하게 한 김홍규 선배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부산에는 대형사건·사고가 유독 많습니다. 노무현 검찰 총장부터 시작해 서거, 부산사격장 화재사고, 통영 모래운반선 침몰사고 등 언뜻 생각나는 것만 이만큼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도움이 있었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손재호 부산지국장



# 스마트폰(Smart Phone), 도대체 무얼 사야 하나요?



## 1. 가장 좋은 PC를 가장 싸게 사는 법

대부분 언론사의 IT 담당자에게는 취재 말고도 몇 가지 업무(?)가 주어지곤 한다. IT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바꾸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예측이나 제안처럼, 회사 발전에 필수적이고 건설적인 것도 있지만, 동료들의 IT제품 구매 컨설팅 같은 (때론 구매대행까지도) 비교적 소소한 일도 포함된다. 나 역시 취재 중 동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내가 컴퓨터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중 난감한 것은 ‘언제 사느냐?’였다. 자고 나면 새 제품이 나오는데, 언제 사야 좋은 걸 싸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되풀이되는 질문에 명답을 찾았다. “돈 되는 대로 당장 사서 열심히 쓰거나, 아니면 죽기 직전에 사라.”

## 2. 가장 좋은 스마트폰을 가장 싸게 사는 법

질문은 PC에서 폰으로 옮겨왔다. 사실 대부분 PC가 인터넷 단말기 역할만을 하고 있는 요즘, 복잡한 최신 게임을 즐기지만 않는다면, ‘좋은 PC’를 가르는 성능의 우열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요즘 대체(?)라는 스마트폰은 PC보다 고르기가 더 어렵다. 우선 ‘브랜드 제품’이나, ‘조립PC’나 정도로 크게 구분된 PC와는 달리, 생각할 게 너무 많다.

### ① OS & AppStore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폰에 실리는 기본SW, 플랫폼이라고도 한다. OS에 따라 그 위에 설치해서 쓰는 앱(응용프로그램)이 달라지므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다. 물론 PC에도 여러 OS가 있지만, 윈도 일색인 PC시장과 달리 (윈도냐, 맥이냐, 리눅스냐를 고민하는 수준이라면 웬만한 IT기자보다도 고수일 가능성 99%이므로 논외로 하고.) 스마트폰OS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직접 골라야 하는 상황이란 게 문제다. 국내 시장은 세계 시장과는 조금 다른데, 크게 윈도폰(MS), 안드로이드폰(구글), 아이폰(애플) 정도로 나뉜다. 뭐가 좋냐고? 글썄...

### ② HW Maker (제조사)

같은 OS를 썼다 하더라도 제조사별 성능 차이는 PC보다는 큰 편이다. 전체의 10% 시장에 불과한 스마트폰 라인업을 여러 개 가져가기 부담스러워 제조사들이 다양한 제품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PU, 디스플레이, 메모리 등 일반 스펙을 꼼꼼히 따지고, 사용자 리뷰도 잘 살펴보는 게 좋다. 또 제조사가 OS제공사와 얼마나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냐에 따라 동일 시점에 다른 버전의 OS가 제공되기도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③ Carrier (이통사)

적어도 요즘 상황에선 이통사도 따져봐야 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이통사의 정책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독점계약 때문에 특정 이통사에서만 공급하는 스마트폰이 있기도 하고, 비슷한 모델이라 해도 이통사의 요금 정책, 부가 서비스 정책 등은 많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려면 합리적인 요금제도는 필수 고려 사항이다.

### ④ Timing(구매시점)& Price(가격)

언제 사느냐도 폰에서는 좀 더 의미가 있다. 이통사가 사서 소비자(가입자)에게 파는 폰 유통 구조상, 보조금 규모가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이번 주에 30~40만원 하던 게 바로 다음 주에 공짜폰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다. 기다렸던 제품이 나왔다고 덜컥 사는 것보단 한 두 달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 3. “그래서 도대체 뭘 사라는 겁니까?”

이쯤 해서 내 속셈을 드러내자면, 결론은 정말 쓸 사람만 사라는 거다. 요즘 스마트폰을 샀거나 사려고 하는 적지 않은 이유는, ‘다들 쓴다니까’, ‘안 쓰면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다.

그렇게 사 놓고는 Smart 대신 Stubborn하게 폰으로만 쓴다. 아이폰 샀다고 자랑하면서 두, 세 페이지 화면만으로 몇 달 동안 버티시는 분들의 곳곳한 고집은 진정 존경스럽다. 결코 싸지 않은 500메가 데이터 요금제 가입해 놓고 실제론 100메가도 안 쓰시는 분들의 절약정신에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면서 일반 폰보다 불편하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전화나 문자 기능까지 참고 쓰시는 인내력에는 박수를 보낸다. 사지 말란 얘기가 결코 아니다. 먼저 어디다 어떻게 쓰려는지 이유를 스스로 살피라는 거다. 그걸 알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진짜 결론은 이것. 최근 피쳐폰 하나가 출시됐다. 스마트폰이 아니란 뜻이다. 하지만,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인 DMB2.0서비스가 지원되는 첫 번째 폰이다. 게다가 무료 무선 인터넷 WIFI도 되고, DivX 동영상도 바로 돌아가고, 교통카드 기능도 있단다. 무엇보다 TDMB방송사들이 수년간 기다려 온 첫 번째 작품이다. 분위기에 휩쓸려 스마트폰 사고 후회할 분에게는 훌륭한 대안이다. DMB2.0 첫 단말 소개 글을 쓰라는 요청으로 본의 아니게 약장수가 돼 버린 느낌이 씁쓸하지만, 적어도 하이라이트인 원숭이 공연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고 약만 파는 약장수가 아니라, 마지막에 약을 꺼내놓는 양심적인 약장수라는 걸로 자위하려는 참이다. 아, 사는 게 참 힘들구나.

기정훈 YTN DMB 데이터서비스팀장

# 리모컨이 없어서 TV를 켜지 못한다?...

사이판 국제공항! 한국에 비하면 작지만 아담한 정이 넘치는 공항이다. 사이판에 도착하면 남태평양의 열대성 기후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된다. 하루에 스콜이 3~4번씩은 쏟아지는 열대성 기후의 맑은 공기 사이판에 나는 YTN에 공항에 위성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앞, 뒤 돌아보지 않고 제안한 약속은 현재 연간 10만 여명의 한국인 관광객과 사이판 지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출국장에서 심터를 마련해 주었다.

## 맛있는 방송!

위성 설치 후 가장 먼저 접한 것은 우연이라고는 지나치게 거짓말 같은 글로벌 코리아이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아쉽게도 장면은 지나고 말았다. 해외 리포트 분들의 소식은 참 맛있는 방송으로 기억한다. 지름 2.5미터의 안테나를 설치하기로 관리부와 회의 후, 난생 처음 올라가 본 공항은 끝없이 펼쳐진 활주로가 한눈에 들어와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 뭉클한 순간도 잠시, 업자와 계획을 세운 후 나의 다이어트는 시작되었다. 체질적으로 살이 많이 붙어 있는 원주민 보안 담당과 함께 3층으로 올라가는 시간만 10분! 임시 계단도 위험하게 올라가는 보안 담당은 우리와 그날 오후를 함께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타 지역 설치 경험에 비추어 하루에 끝낼 맘으로 바빠 움직였지만, 간간히 오는 스콜과 우리와 함께 업무를 보는 보안 담당의 숨찬 목소리가 함께 시간을 빠르게 보낸 것이었다. 다만, 보람은 시그널이 83%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사이판 지역에 60% 신호감도가 넘는 곳을 보지 못했다.) 설치 업자도 이런 기록은 10년 경험상 처음이라고 한다. (아! 강풍 등 열악한 날씨로 인해서 화면이 찌그러지는 모습은 공항에서 보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 멋있는 방송!

공항은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을 찾아다니며 케이블을 설치하면서 보안 담당과 위성 설치 업자를 계속 따라 다니며 통역과 조수 역할을 하였다. 둘째 날의 보안담당은 보

기 드문 날쌔돌이로 교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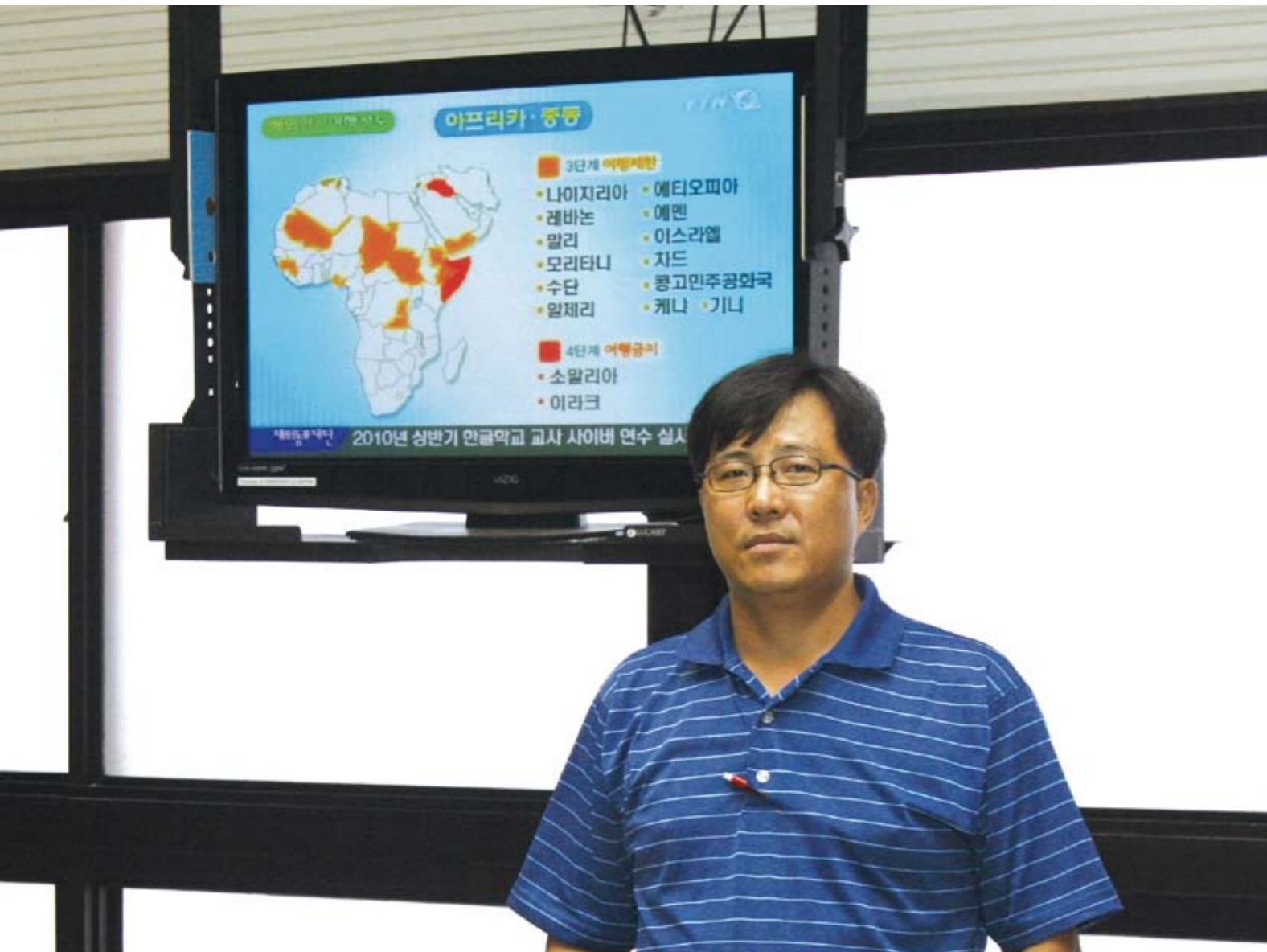
전날의 보안 담당은 태풍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근무 교체되었던 것이다. 아! 오늘은 끝낼 수 있구나 하는 다짐 속에 스콜이 나의 상의를 적셔도 천천히 마르는 시간은 매력이었다. 쉽지 않은 작업은 뼈적 마른 업자에게 안성맞춤이었다. 군복 차림의 그는 머리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에도 서슴지 않고 유격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 덕에 작업은 빠르게 끝낼 수 있었고, 어제 테스트를 끝낸 리시버와 TV에 연결만 하면 사이판 국제공항에도 관광객들에게 실시간 뉴스를 전달해 줄 수 있구나 하는 멋진 방송을 생각하며 보안 담당과 TV 앞에서 담화를 나누고 있을 즈음, 사업자의 한 마디는 나를 다음날로 이어지게 하는 과감한 발언이었다. “리모컨이 없어서 TV를 켜지 못한다” 보안 담당은 자기는 근무지가 아니라서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오후 4시 30분에 일을 마치는 이곳 사람들의 근면성에 30분을 남기고, 관리 공단과 용역업체들을 수소문 리모컨의 행방을 찾았지만, 이곳 공항에서는 손님이 있어야만 식당 및 서비스 업체가 문을 연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던 것이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출국장에는 내 일을 기약하며 근무자가 있을 때 꼭 오리라 다짐하며 발길을 돌렸다.

## 함께하는 방송!

공항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은 마라톤 결승점에 도착한 후 먹은 물보다 더 소중했다. 우리의 결승점은 이제 거의 도착을 알리고 있었다.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나에게 참 고맙고 함께하는 방송이었다. 3일 여정은 끝이 나고 매일 새벽, 주 3회의 오후에 한국인들에게 함께하는 방송을 시청하게 해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따뜻한 소식들이 방송되어 편안한 휴식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춘희 글로벌코리아 사이판 리porter



# 강원도의 힘, 춘천지국

## < # 하나 >

- 선배, 내일 새벽에 출다고 전화 연결 있다는데요.
- 얼마나 추운데?
- 영하 10도 정도요.
- 아 영하 10도가 뭐가 춥다는 거야, 포근한데.
- 호수가 다 얼었다는데요.
- 아 그럼 겨울에 호수가 얼지, 녹나?
- 그야... 그렇죠.

다들 하시겠지만 강원 영서 지역, 무척 춥습니다. 추위에 관해선 독보적인 곳, 철원도 춘천지국의 관할이죠. 철원이 얼마나 추운지는 주민과 인터뷰를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하 15도 쯤 되는 날씨에 “오늘 많이 춥죠?” 하고 물으면 “기차 양반 몸이 허하시구만”이라는 대답이 돌아오죠.

## < # 둘 >

- 선배, 원주에서 살았어요.
- 뭐?
- 정신이상자가 병원에서 간호사를 칼로 찔러서 1명 죽었대요.
- 총 출동. 빨리 가자.

간만에 발생한 살인사건, 원주까지 날아갔지만, 본사 반응 썰렁하고 리포트 몇 번 안 나갑니다. 엄청난 사건이 평평 터지는 다른 지국을 보면 가끔씩 부러울(?) 때도 있답니다. 최근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지난 해 동반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을 때였죠. 조용한 곳입니다. 강원도. 김길태 같은 강력 사건은 상상도 못하죠.

좁고 조용하며 광활한 강원 영서 지역을 맡고 있는 우리.



춘천지국 가족은 모두 6명. 땀 냄새나는 남자들만 구성돼 있습니다. 모두 남자임을 강조하는 건 아시겠지만 아쉽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와도 평상심을 놓지 않는 지국 식구들이지만 어쩌다 사무실에 들르는 보험 아주머니나 1층 은행 직원들의 하이힐 소리가 들릴 땐 사무실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



## 가족 소개 좀 해볼까요

우선 지국장이신 홍영기 선배, 강원권 방송기자 중 거의 왕고참인 홍선배는 한마디로 마당발. 관공서든 산이든 들이든 그 어디에 취재를 가도 YTN 로고만 보면 다 와서 홍선배를 찾습니다.



암벽 등반 전문가 진민호 선배(카메라), 한 겨울에도 주로 반팔을 입는 진선배의 터질듯한 상반신 근육을 보여야 하는데... 가파른 강원도 산길을 카메라 들고 뛰어 올라갈 땐 오디오맨 눈에선 눈물이 맺힙니다.



얼마 전 품절남이 된 우영택(카메라), 산악자전거 마니아에 최근엔 수영으로 더 넓어진 어깨를 걱정하는 만능 스포츠맨. 듣도 보도 못한 장비를 들고 와 지국 식구들의 기를 죽이는 early adopter이기도 하죠.



최근 다이어트에 들어간 오디오맨 이현중. 입사 1년이 넘으면서 강원권 방송 오디오맨 중 자기가 에이스라고 주장하는 지국의 막내, YTN 입사 후 방통대에도 등록한 열혈청년입니다.

한달 전 입사한 운전기사



박현신, 나이는 어리지만 수많은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그만큼이나 많은 여자 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 일정 나갈 때면 어디든 따라다니며 굶은일을 도맡는 든직한 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밤마다 출입처와의 술자리로 날이 갈수록 배가 불룩불룩 나오는 저, 지환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지국 소개 글을 쓰라기에 고민 많았습니다. 새로 지은 빌딩에 있다는 사무실이나 최첨단 엘리베이터가 나오는 다른 지국 이야기에 많이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춘천지국의 사무실 수준이나 근무 환경이 그다지 쾌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렴한 월세를 내고 있는 사무실 치곤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하고 넓죠. (월세 금액은 비밀입니다) 같은 층에 있던 감정평가사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빌딩 6층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옆 사무실엔 역기와 헬스도구를 갖다 놓고 체력단련실로 사용하죠. 셋방살이 눈치나 간섭도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 빌딩마다 비어 있는 곳이 많은데, 아마 우리가 방 뺏다고 하면 빌딩주도 고민 좀 될 겁니다.

큰 사건이 거의 없다고 춘천지국이 마냥 한가한 건 아닙니다. 강원도 지도를 펴 보면 알겠지만 휴전선 앞 DMZ부터 경상북도 경계선까지가 춘천지국의 관할입니다. 두세 시간 정도 이동하는 건 비교적 짧은 거리죠. 전화 안 터지고 인터넷 먹통이고 도로도 없어 내비 안 찍히는 산골도 많지만 강원도 곳곳을 카메라에 담을 때마다 우리네 산과 들의 아름다움에 가슴이 촉촉해지고 보람도 큼니다. 인력이 부족해 공백도 있지만 튼튼한 두 다리로 백두대간을 누비고 '진짜 네트워크' 24시간 뉴스 YTN을 전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쯤되면 '강원도의 힘' 춘천지국 아닙니까?

<추신> 춘천지국의 좋은 점 또 하나, 손님이 오면 가격 저렴한 닭갈비, 막국수로 모시면 된다는 거. 막국수 곱빼기 다 드시면 닭갈비 상품권 드려요. 많이들 놀러오세요~~~~!

지 환 춘천지국



# 스페인어로 우리를 웃겨주시던 수녀님들...



폐허가 된 칠레 지진현장에서 취재지원을 받았던 수도권 수녀님들과 함께



카메라 담당 이상욱씨와 함께

대지진으로 폐쇄됐던 칠레 산티아고 행 비행기가 처음으로 멕시코 공항에서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카메라맨과 나는 전속력으로 출국검사대로 뛰었다. 옆에는 항공사 직원이 무전기를 들고 심 없이 연락을 취하며 같이 뛰고 있었다. 이미 한차례 운항 취소로 하루를 허비했는데 이것마저 놓치면 취재는 크게 빛이 바랄 수밖에 없었다. 검색대와 이민국을 지난 뒤 게이트까지 백미터 달리기 끝에 비행기에 오르니 맨 뒷자리에 남은 두 개의 좌석이 보였다. "이제 가는구나!"

예약된 비행기 스케줄은 완전히 무시된 출장이었다. 칠레 공항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탑승이 거절될 수 있는 곳이 남미 항공사들의 행태라는 말을 들은 터라 더욱 불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비행기에 태워주겠노라는 약속은 당일 좌석이 없다는 간단한 변명에 간단히 뒤집어지고 불안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예정된 출발시간이 지난 뒤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최고 담당자란 사람을 붙들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만 되풀이 했는데, 신통하게도 이것이 통했다. 누군가와 얘기하는가 싶더니 우리에게 빨리 뛰어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빙긋이 웃는 담당자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뛰어가 비행기를 잡아 탄 것이다.

칠레는 남미에서는 꽤 부유한 나라에 속한다. 세계 최고의 구리광산과 목재, 와인 등 농산물 수출로 돈을 벌어 국민소득은 7천 달러에 이른다. 칠레 스스로 여타 남미국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상류층은 독일 등 유럽의 혈통을 갖고 있다. 문제는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국가적 자존심이 강하다보니 지진으로 폐허가 됐는데도 외국의 구호지원을 거절했다. 결국 지난번

아이티 지진 때처럼 한국의 민간 자원봉사 단체나 소방구호대가 들어오지 못했고 결국 취재진들은 인터넷 등 지원을 기댈 곳이 없었다. 지진으로 통신망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했다. 인터넷 화면 전송이 안 돼 자동차로 6시간을 달려 겨우 송신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큰 지진피해를 입은 콘셉시온의 한 가톨릭 수도원은 인터넷이 가능했다. 시내에서 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는 지금도 신기하기만 하다. 칠레에 온 지 사흘이나 지난 뒤 찾은 것이 한 없이 억울하기는 했지만 염치없이 숙박까지 청하며 호화로운 취재지원을 받았다. 한국에서 온 수녀님을 포함해 모두 네 분이 미디어 문서 사역을 하는 곳이었었는데, 칠레 수녀님들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스페인어로 열심히 우리를 웃겨주시던 밝고 따뜻한 분들이었다.

뉴욕 YTN 사무실은 맨해튼의 중심가인 5번가에 자리 잡고 있다. 아담한 사무실을 든든히 지켜주는 사람은 카메라맨 이상욱씨(사진)이다. 지나친 동안(童顏)이지만 30대에 접어든 노총각이다. 뉴욕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칠레출장에서 진가를 여실히 발휘했다. 변변한 식당이 없어 점심 굶는 것은 기본이었는데 체력으로 버티며 험한 지진현장을 누볐다.

금융위기를 넘기며 뉴욕은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외교도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한인사회는 전에 없는 결속을 강조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거리로는 서울에서 가장 멀지만 (아직까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뉴스를 자세히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이재윤 뉴욕지국장





## 열정과 추억을 함께할 수 있어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렸던 긴 겨울이 지나고 저만 큼에서 머뭇거리던 봄이 곁에 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때아 닌 진눈깨비와 황사 바람이 때론 심술을 부리기도 하지만 이제 초록빛 새순과 개나리, 진달래, 복숭아꽃이 힘찬 생 명의 에너지로 온 산하를 물들이며 아찔한 향기로 대지의 축복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YTN에서의 17년을 포함하여 34년간의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며 정년퇴직하는 저는 사랑하는 YTN 과 더 오래 같이하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지만 참 행복합 니다. 17년 전 외형은 아주 작고 불꽃없는 모습이었지만 가슴에는 일등방송을 꿈꾸며 시작한 YTN. 지금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뉴스채널로서 케이 블, 위성, IPTV를 포함하여 라디오, DMB 등 지상파까지 거느린 종합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큰 도약 을 위해 삼삼동 시대를 준비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온 사랑

3월에 김희중 감사와 박찬중 단장,  
4월엔 박종찬 위원, 김대천 팀장이 퇴임했다.  
회사는 퇴임자가 회사 메일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메일 계정을 유지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특정한 날을 정해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다.  
퇴임자도 YTN의 가족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유지시키려는 회사의 작은 배려다.

하는 후배들이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라는 확신 때문 에 정말 자랑스럽고 마음 뿌듯하게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지난 일들이지만 YTN 구성원 들의 뜨거운 열정은 개국 초기 삼풍백화점 붕괴 취재 현장 에서 활화산처럼 타올랐으며 모든 뉴스의 현장에서 새로 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오늘과 같은 성 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과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아직도 회사 밖 을 배회하는 해직자들과 선후배 간에 불편한 감정들도 남 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고락을 함께한 가 족으로서 이젠 화해하고 이를 극복하고 가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 안 아야 할 존재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을 포함해서 모두가 선 후배들입니다. 서로 이해와 화합으로 하나 되어 그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 크게 도약하기를 바라며 이제는 회 사를 떠나도 영원한 YTN의 가족으로서 여러분을 응원하 고 행복을 빌겠습니다.

끝으로 후배에 대한 사랑과 선배에 대한 존경이 YTN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남아 퇴직자들도 YTN 가족으로서 자 연스럽게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너그러운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존경받는 선배로서 기억 될 수 있도록 밖에서도 YTN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살 겠습니다.

2010. 3월 박찬중



〈김희중 감사〉 회계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한 자금흐름과 경영의 틀을 뒤엎다. 또 감사로 재직하면서 적지었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 정상화에 큰 기여를 했다.



〈박종찬 부국장〉 YTN에서 재직 16년 동안 제작기술부장, 중계부장, 기술관리부장, 기술기획팀장을 역임하시면서 불모지에서 출발한 YTN을 공중파와 비교해서도 손색없는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김대천 서울타워 시설팀장〉 30여년을 서울타워 시설안전분야에 한길을 걸은 산 증인. 또 서울타워 시설개선과 시설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특유의 성실성으로 슬선수범해 왔다.



# 프리마돈나 조수미, 그 만남의 허탈과 감동...

1981년 11월 21일 송의음악당에서는 제1회 'MBC대학가곡제'가 열렸다. 육군 항공 중위 시절, 결혼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아내와 함께 상경해 가곡제를 감상했다. 대상은 '눈'이 받았다. 순결한 사랑을 노래한 이 곡이 너무 좋아 여동생에게 피아노 반주를 부탁했고, 노래를 익히려 애썼으며 잘 부르진 못하지만 애창곡이 됐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날 무렵, 대담 프로 <YTN포커스>에 그녀가 출연하게 됐다. YTN이 창사15주년 기념으로 기획한 조수미 콘서트와 연계된 것이다.

녹화 몇 주 전부터 마음이 두근거렸다. 오랜 세월 가슴에 새겨 놓았던 대스타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설렘 때문이었다. 두툼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박스에서 그녀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빛바랜 팸플릿을 발견해냈을 땐 보물이라도 찾아낸 양 성취감에 도취됐다. 그 속에 그녀는 옛된 모습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녹화를 마쳤다.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팸플릿을 봉투에서 꺼냈다. 세계 정상의 프리마돈나 조수미로부터 얼어붙을 듯 그 어떤 감동을 기대하며 아주 조심스레 펼쳤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특별한 서명도 받을 계획이었다. 그녀의 페이지, 좌상은 작사 작곡 김효근(서울대학교 경제학과 3년), 우상은 노래 조미경(서울대학교 성악과 1년)의 사진이 옛되게 자리하고 있었고, '눈'의 악보가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자필 메모 '大賞'이 적혀 있었다. 아! 그런데 이게 어인 일인가? 조수미 왈 "애는 내가 아니고, 같은 과 친구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미경이에게 얘기 해줘야겠다."라고 말 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난 당황했고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조수미가 어떤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곧이어 김효근의 사진을 보곤 "애 나한테 장가들었으면 고생 많이 할 뻔 했지. 안하길 잘 했지!" 라고 말할 땐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기에 또한 헛갈렸지만, 곧 많은 의문들이 해소됐다.

작각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 년 전, 조수미의 첫 사랑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서울 음대 성악과 시절, 같은 대학 경제학과에 다니는 K가 작사 작곡한 노래 '눈'을 불러달라고 부탁했고, 그와 첫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와 '조수미'란 이름은 예명이라는 사실, 또 그녀

의 음반 중엔 '눈'을 노래한 것도 있어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99% 동일 인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의 사실은 모두 맞지만, 당시 성악과 교수님께서 그 노래를 절대 부르지 못하게 해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과 그 노래를 결국 같은 성악과 친구인 조미경이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조수미(본명 조수경)로부터 들으면서 사실관계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살아오면서 그녀의 노래가 들리기라도 하면,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조수미'는 예명인데, 제1회 MBC 대학가곡제에서 '눈'을 불러 대상을 받았고 그 곡을 만든 학생과 첫사랑의 추억이 있었으며, 덧붙여 지금의 눈은 쌍꺼풀인데 가곡제 때의 이미지와 달라진 것으로 보아 아마 수술했을 거라고 추측성 이야기까지 덧붙여 전파하곤 했다.

녹화현장에서, 삼십 여 년 전 기록을 보여줌으로, 진한 감동을 선사하려했던 필자로서는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고 허탈하기까지 했지만, 한편으론 이래서 역사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야사가 존재하며 늘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쉽게 단정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또한 되새기게 되었다. 세계 정상의 프리마돈나 조수미의 음악세계와 삶의 편린 그리고 겨레 사랑과 인류애를 엿볼 수 있었던 이날 대담은 내내 가슴 뭉클함으로 와 닿았다. 몇 주 내내 가슴을 두근거리며 준비한 프로그램 그리고 그녀와의 특별한 만남은 앞으로 30년, 또 다른 이야기 거리로 남아있을 것이다.

2010년 3월 23일 김재동 부국장 제작 1팀



Prima donna ●

SUMI



4월 12일 20층 스튜디오를 견학하는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새내기들. 회사는 견학자를 대상으로 기상캐스터 체험을 하고 기자 스탠드 업을 ENG로 촬영해 USB로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 유익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나의 꿈은 앵커



재외동포 교육 및 국제교육 교류사업 협약 (3. 9)



봉사와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한 MOU (3. 18)



제 1회 사이언스TV 시청자위원회 (3. 18)



17기 정기주총 (3. 19)



지상파 DMB 업무협력조약식 (4. 1)



전국자원봉사대축제출범식 (4. 22)

### 기구개편

〈신설〉 라디오사업본부 3.24 / DMB사업본부 3.23 / 사장 직속(미디어전략실, 미래전략실, 보도담당 상무, 경영기획실 신사옥건립추진팀, 보도국 산업부, 보도제작국, 제작1팀, 제작2팀 4.5 (이동) 홍보팀(사장 직속)▶경영담당 상무 직속) 4.28, 기술연구소(보도담당 상무 직속)▶기술국) 4.5 / 미디어전략팀(경영기획실)▶미디어전략실, 기술연구소(전무 직속)▶보도담당 상무 직속, 홍보팀(전무 직속)▶ 사장 직속, 〈폐지〉 전무, 신사옥건립추진본부, 월드사이언스포럼추진단, 보도제작부, 미디어환경변화대응TF팀, 특집기획TF팀 3.19, 〈명칭변경〉 경영기획실 디지털기획팀▶경영기획실 정보시스템팀 4.5

### 승진

〈차장대우〉 서영진 총무팀, 최재일 구매팀, 박기용 마케팅팀, 김선중 선거방송기획팀, 장석문 편성운영부, 박승표, 김태진 정치부, 한상욱 경제부, 김정현 광주지국, 전기호 대구지국, 김지현 문화과학부, 김선희 국제부, 김경아 편집2부, 염덕선 영상취재부, 기술국 김태우, 정광용, 전봉규, 김재택, 문정호, 김형식 제작기술부, 기호균, 조주현 송출기술부, 김민태, 한철용 중계부, 정원태 장비관리팀, 박경준 (주) YTNMB파견, 김진국 (주)YTN라디오파견, 박정호, 김 민 영상취재부, 김중완 영상편집부, 김동훈 기술연구소 4.5 〈국장〉 강철원 라디오사업본부장, 〈국장대우〉 이정우 대전지국장, 유석현 국제부, 남상규 영상아카이브팀장, 〈부국장〉 이인배 광주지국장, 한철용 제작팀, 정영철 기술연구소장, 김승환 YTN라디오파견, 〈부국장대우〉 전용화 디지털기획팀장, 안재열 마케팅3팀장, 추은호 선거방송기획단 부단장, 조용원 영상담당부국장, 윤두현 정치부장, 송경철 앵커팀장, 이규영 디지털뉴스팀, 이철용 영상편집부장, 한영규 제작팀장, 임영선 제작기술부장, 〈부장〉 황선욱 미디어전략팀장, 김정대 디지털기획팀, 김선석 매체협력팀장, 이기정 뉴스기획팀장, 박근표 사회2부장, 김동우 청구지국장, 상수중 국제부장, 이창준 중계부장, 허창재 장비관리팀장, 신광호 사이언스TV본부 방송지원팀장, 〈부장대우〉 나은수 구매팀장, 전병곤 마케팅기획팀장, 김진호 보도국, 김응건, 이동우 정치부, 오인석, 정종석 경제부, 김학우 사회부, 강성욱 사회2부, 송태엽 대전지국, 박주익 부산지국, 김태현, 이종수 국제부, 이준호 그래픽팀장, 이광래 영상취재2부, 박철원 제작팀, 정진용 송출기술부, 정창원 제작기술부, 문석호, 방을열, 오광식 중계부 류재웅 YTNMB파견, 〈차장〉 유재복 홍보팀장, 김용섭, 서대원 미래전략팀, 이재홍 경영기획실, 김진우 기획총괄팀, 박형일, 김한성, 최경순, 김재학 디지털기획팀, 정태결 마케팅기획팀, 김남식 마케팅3팀, 이동열, 백상기 사업팀, 김상익, 김명수, 한원식 보도국, 정동근 편성운영부, 유충섭, 김문경, 김중교, 윤경민 정치부, 강성웅, 김지영, 유환호, 이병식 경제부, 박홍규, 이상수 사회부, 이철근, 강현석 부산지국, 장영환 대전지국, 김경록 광주지국, 조영권 전주지국, 이준우 제주지국, 김정희, 김진두, 오점근 문화과학부, 김동민 스포츠부, 조승희 국제부, 김승재 북경지국장, 이교준 해외방송팀, 정재훈, 홍성혁 편집2부, 박경석, 오승연 편집2부, 방병삼, 황보선, 김효준 편집3부, 정찬배, 호준석 앵커팀, 범희철 그래픽팀, 정하인, 이동형, 김인규, 최준영, 김태은 영상취재부, 이성모 영상취재2부, 김정한 영상편집부, 이강문 제작팀, 김한철 기술기획팀, 오민철, 강희택 인프라팀, 민병오, 박종대, 최상선, 류근민, 이병문, 제작기술부, 김진호, 임준석, 주윤영 중계부, 정해봉, 유화성, 이재우 장비관리팀, 한정호 사이언스TV본부 제작팀장, 이승우, 윤진원 YTN라디오 파견 4.1

### 인사발령

강경규, 김대근, 김평정, 나연수, 안윤학, 이하린, 홍성노 보도국, 김성두 기술국 4.19 / 박병환 부장대우, 신용진 차장대우, 김세호, 전기영 산업부, 신현준 차장대우 미래전략팀, 조항윤 부장 직속실, 이한빈 기획총괄팀, 하정완 총무팀, 윤진원 차장 구매팀, 한상규 부장대우 매체협력팀, 최성호 차장 마케팅기획팀, 김남식 차장, 이종하 마케팅팀, 남궁용 마케팅팀, 김호석 차장대우 사업팀, 정석영 차장, 임종우 차장대우, 이정미, 강진원, 오승연 차장 정치부, 김용섭 차장, 김준영, 이민수, 윤현숙 경제부, 김중교 부장, 강성욱 차장 산업부, 김현우 산업부 겸직, 김용래, 유환호 차장, 정병화, 전준형 권준기 사회부, 김지선, 오점근 차장, 홍석근 사회2부, 이승은 차장대우, 김수진 문화과학부, 김재형 스포츠부, 이지는 편집부, 김주환 차장, 김선희 차장대우 편집2부, 한상욱 차장대우, 이승민 해외방송팀, 최상하 차장대우, 이병식 차장 국제부, 김희준 차장대우 디지털뉴스팀, 권혁용 차장대우, 정철우, 사원 박진수, 이동규, 강재환 차장대우, 박관우, 홍문표 부국장대우 영상취재부, 이동형 차장, 권현주 차장대우, 김태은 차장, 최용호 차장대우 영상취재2부, 오유철 차장대우, 김태형, 최윤석 영상편집부, 변재철 차장대우, 김재동 부국장 영상아카이브팀, 서영석 차장 보도제작국, 김정희 차장 제작팀, 장민수 차장대우, 정애숙 차장대우 제작2팀, 박형일 차장, 송병준 차장 기획팀, 이기래 차장대우 인프라팀, 이건선 차장, 김형식 차장대우, 김진국 차장대우 송출기술부, 정성욱 차장대우, 주윤영 차장, 김용영 차장대우, 강기찬, 이승우 차장 제작기술부, 이창준 부장, 오민철차장, 최병관 차장, 김형욱 차장 중계부, 박두만 차장대우, 문석호 부장대우 장비관리팀, 김한수 차장대우 기술연구소, 황순우 사이언스TV본부, 강창국 정보시스템팀, 김명준 경영관리팀, 최상하 마케팅기획팀, 한기중 매체협력팀 4.12 / 이규영 보도국 취재부국장, 한영규 보도국 편집부국장, 이동현 미디어전략팀장, 정중석 미래전략팀장, 황선욱 기획총괄팀장, 김정대 정보시스템팀장, 천상규 인사팀장, 유종선 신사옥건립추진팀장, 김선석 총무팀장, 심창래 구매팀장, 김해중 사업팀장, 나은수 사업2팀장, 김윤섭 마케팅기획팀, 안재열 마케팅팀장, 전병곤 마케팅3팀장, 김원배 경제부장, 김재하 산업부장, 채승진 사회부장, 이양현 문화과학부장, 강성욱 디지털뉴스팀장, 이철용 영상취재부장, 조성룡 영상편집부장, 김승환 부국장 해설위원실, 오수학 제작팀장, 박철원 제작2팀장, 임영선 기술기획팀장, 전용화 제작기술부장, 김영철 중계부장, 박종찬, 이창준 기술국 기술지원, 이승우 부장대우 YTN라디오 파견, 조항윤 부장, 임수근 차장, 이강문 차장, 안광연 제작팀, 김재동 부국장, 박준은 제작2팀 4.5 / 정영근 보도제작국, 문중선 미디어전략실, 류희림 경영기획실, 박두승 총무국장, 이홍렬 마케팅국장, 이병근 미디어사업국장, 김홍규 보도국장, 신상욱 선거방송기획단장 4.1 / 강철원 라디오사업본부장 3.24 / 황영수 YTNMB총괄본부장 3.23 / 황선욱 미디어전략실 미디어전략팀장, 한영규 보도제작국 제작팀장, 김용섭 차장대우, 서대원 차장대우 미디어전략실 미래전략팀, 이성희, 안상수 경영기획실 신사옥건립추진팀, 김재동 부국장대우, 박철원 차장, 박준은 보도제작국 제작팀, 조항윤 부장, 임수근 차장, 이강문 차장대우, 안광연 보도제작국 제작2팀, 김현우, 이현석 미디어전략실 미디어전략팀 3.19

### 2010년 1분기 포상

〈특종상 은상〉 박주영 부장대우, 이철근 차장, 강현석 차장, 김중호 부산지국: 남치 살해범 김길래 수사본부 압송 독점 생중계. 〈특종상 동상〉 김주환 차장 정치부: 북한, 서해상에 항행금지구역 선포 보도 / 이승윤 정치부: 지난해 북한 체제 보장 의사, 북한에 전달 보도. 〈우수프로그램상〉 이강문 차장 제작팀, 이동형 차장 영상취재부, 강진원 사회부: YTN 개국 15주년 특별기획 '국가브랜드가 경쟁력이다'. 〈사이언스TV 우수프로그램상〉 자체제작 정재기 제작팀: 도전! 신기록 프로그램 제작 / 외주제작 좋은 프로그램선: 〈고수비급〉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공로상〉 민병오 차장 홍보팀: YTN 개국 15주년 기념 사보 제작 / 박형일 차장, 송병준 디지털기획팀, 정원태 차장대우 장비관리팀: 디지털뉴스룸 구축 / 윤성희 경영관리팀: 세무조정을 통한 절세 / 이선주 총무팀: 임원 비서업무 충실 수행 / 박종혁, 전재영 차장대우 부산지국: 최초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남극항해 동행 취재 / 강근대 차장대우, 원종호 차장대우, 윤원식, 이상엽 영상취재부, 이민수 사회부, 홍선수 경제부: 아이티 지진 사회부, 황송 사회부, 황송 / 오승연 차장 편집2부: 개국 15주년 특집뉴스 진행 / 범희철 차장 그래픽팀: YTN타워 로비 CI 컨셉 디자인 / 전재성 차장대우 제작팀장, 김용섭 차장대우 장비관리팀: 날씨 화면 전환용 무선 리모콘 개발 / 권혁근 차장대우 중계부: 중계차 휴대폰 중계기 설치 4.12

### 퇴사

김대현 타워운영팀, 박종찬 부국장대우 기술국, 김준형 타워운영팀, 김미정 영상편집부 4.30 / 박상철 타워운영팀 4.9 / 박준중 선거방송기획단장, 정중현 제작기술부 3.31

